

강렬하고 빠른 전개 그리고 반전

시청자 사로잡는 '비밀의 숲'

조승우 '차도남' 완벽연기 '큰 몫' ... 배우나와 호흡 기대

간결하고 빠르다. 양념은 안 찜고, 대신 뒤통수를 친다. 집중을 하지 않으면 미세한 표정 변화, 상황 변화를 놓치기 십상이다. 덕분에 1시간이 넘는 방송이 5분처럼 육지나간다.

tvN 주말극 '비밀의 숲'이 입소문과 함께 예열 중이다. 지난 18일 4회의 평균 시청률은 4.2%(이하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순간 최고 시청률은 5%를 찍었다. 이미 주인공 조승우의 명연기에 대해서는 뜨거운 반응이 터져 나왔고, 범인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청자는 몸이 달아올랐다.

사전제작을 통해 완성된 '비밀의 숲'은 제작진의 손을 떠난 활사이다. 시청자 반응에 휘둘릴 여지가 없다. 추울 때 촬영해 지난 4월에 모든 공정이 끝났다. '땀'을 걸 새 없이 질주하고, 시비를 걸 빈틈을 노출하지 않는 흥미로운 스토리가 힘을 받는다.

검찰과 경찰의 스펀서였던 한 사업가의 살해 사건, 살인 누명을 쓰고 잡힌 철도병의 자살 사건에서 시작한 드라마는 한겨울 차가운 공기처럼 결을 내주지 않는다. 범인의 꼬리가 잡힐 것 같은 순간 드라마는 뒤통수를 친다. 미사여구 없이 질주하는데 시청자가 빨려 들어간다.

제작진은 20일 "이수연 작가가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 실제로 검사 출신이 아닐까 싶은 정도로 어려운 소재를 굉장히 촘촘히 잘 써줬고, 묘사들이 굉장히 현실감이 높으면서도 긴장감 또한 놓치지 않는다"고 자랑했다.

이어 "검찰 스펀서 살인사건이라는 사건에 초점을 맞춘 이 드라마에서는 앞으로 사건이 점차 범인의 의도, 행방도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지게 된다"며 "모두가 동기를 가진 용의자로, 누가 범인인지 추적해 나가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4회까지 극을 예열시키는 데는 주인공 황시목 검사를 연기하는 조승우의 공이 지대했다. 과거 뇌수술을 받고 감정을 잃어버린 것으로 설정된 황시목은 어떤 상황이 와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 희로애락을 잃어버린 황시목은 시중 무미건조하다. 그런데 그런 조승우의 연기를 보는 시청자는 '달뜨게' 된다.

무미건조함, 냉정함을 연기하는 조승우의 연기는 카펫 위에 떨어지는 클립 소리로 집어낼 듯 섬세하다. 배우의 연기가 표정과 목소리의 변화에 상당 부분을 기대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것을 배제한 채 연

기를 하면서도 매 상황 시청자를 설득시키는 조승우의 모습에 절로 감탄하게 된다.

TV드라마에 널린 수많은 '차도남'(차가운 도시 남자)과는 전혀 결이 다른,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 같은 그의 연기는 시청자를 찌릿 감전시킨다.

제작진은 "조승우 씨의 훌륭한 연기력 덕분에 첫방송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 까다롭고 힘든 부분이었을 텐데 조승우 씨가 완벽하게 황시목으로 변신해 훌륭하게 소화해냈다"고 극찬했다.

이어 "연기에 대한 몰입도가 훌륭해서 조승우 씨가 아니었다면 감정이 없는 검사 황시목을 과연 누가 표현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황시목의 감정을 '거세'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감정에 얽매지 않는 황시목은 개인의 욕심에 흔들림 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검사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황시목 캐릭터가 다른 작품의 검사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면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우나와 분량이 지금까지는 너무 적었던 것이 아쉬움을 전한다. 연기력으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배우나와 여주인공임에도 4회까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배우나는 극중 경찰대 출신 열혈 형사 한 여진을 맡았다.

제작진은 "한여진은 극이 전개될수록 사건의 중심에 있는 황시목과 공조해나가면서 황시목이 조금씩 믿고 신뢰하는 수사 파트너 같은 존재가 된다"고 귀띔했다. 제작진은 "한여진은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많이 보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따뜻한 심



성을 유지한다. 그런 점에서 감정을 잃어버린 검사 황시목과 대비되면서도 황시목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라며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톤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일부 인물의 대사와 상황이 불분명하게 전달되는 것도 아쉬움이다. 빠른 전개 속에서 대사벨을 낚은 비밀스러운 대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포커페이스 미팅이 이어지면서 일부 대사와 상황이 모호하게 느껴 지나가 버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작진은 "대본과 연기가 너무 좋아 오히려 과도한 연출이 극을 방해하지 않게 호흡을 따라가면서 더욱 리얼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했다"며 "탄탄한 서사와 연기자의 명연기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잘 담아내는 게 제작진의 가장 큰 숙제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희원·이하나, 영화 '여름방학' 주연

8월 크랭크인

배우 김희원과 이하나가 영화 '여름방학'에 캐스팅됐다고 이 영화의 제작사 씨네21이 20일 밝혔다.

'여름방학'은 택시기사와 버스운전사의 젊은 아내가 바람이 나 도망치자, 남겨진 가족들이 이들을 찾아 버스로 전국을 헤매는 내용의 코믹 로드 무비다.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 제작지원 당선작으로, '프락치'(2005), '죽지 않아'(2013)를 연출한 황철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영화 '불한당'으로 올해 칸영화제의 레드 카펫을 밟은 김희원이 추격에 나선 버스 기사 봉수역을, OCN 드라마 '보이스'에서 연기변신을 보여준 이하나는 택시기사의 아내 정순역을 맡는다.

본격적인 촬영은 오는 8월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김희원



이하나

YG 버전 '프로듀스101' 나온다

"신개념 오디션 구상 중"

연습생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YG엔터테인먼트 버전 '프로듀스101'을 이르면 올 가을 볼 수 있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20일 "프로듀스101'을 처음 기획한 한동철 PD와 손잡고 타 기획사 소속의 신인그룹들과 컬래버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에는 YG 소속 아티스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도 할 수 있고, 특히 SBS TV 'K팝스타'가 중영했기 때문에 양현석 대표도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게 YG 측 설명이다.

YG 측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준비 중"이라며 "특히 한동철 PD는 '프로듀스101'뿐만 아니라

'쇼미더머니'도 연출했기에 신개념 오디션 프로그램이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YG의 오디션 및 서바이벌 프로그램 제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YG표 프로듀스101' 뿐만 아니라 올가을부터 소속 연습생이 출연할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선보이겠다는 게 목표다.

YG 측 관계자는 "30여 명의 소속 남자 연습생들로 팀을 구성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제작할 것"이라며 "'K팝스타' 시즌2에서 준우승했던 방예담도 참가자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블핑(블랙핑크)TV', '위너TV', '아이콘TV' 등 소속 가수들을 주인공으로 한 자체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YG는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서울 상담동에 영상편집실과 회의실을 갖춘 대규모 사무실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It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for June 21st.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Description, and Program Name. It lists EBS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for June 21st.

Table with 2 columns: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and Horoscope text. It provides horoscope readings for each zodiac sign on June 21st.